중소벤처기업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(지 면) 12.28.(수) 조간 (인터넷) 12.27.(화) 12:00	-

담당 부서	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배석희 (044-204-7820)
		담당자	사무관	송승현 (044-204-7825)
	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	책임자	과 장	양동희 (042-481-2181)
		담당자	사무관	고주현 (042-481-2210)

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 발표

□ 소상공인 사업체 수(-0.2%) 및 종사자 수(-1.1%)는 전년 대비 감소…
사업체당 연매출액(2.9%) 및 영업이익(39.8%)은 증가

□ 내년 3월 확정자료를 공표할 예정이며, 심층분석을 통해 소상공인·자영업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이영)와 통계청(청장 한훈)은 소상공인 현황 및 경영실태를 파악해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「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」 잠정 결과를 27일 공동 발표했다.

<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개요 >

- (법적근거)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9조(실태조사 및 통계작성), 「통계법」제18조(통계작성의 승인)에 의한 일반통계(국가통계승인 제920022호, '19.6월)
- (작성기관) 중소벤처기업부, 통계청
- (조사주기/대상) 1년('22.6.15~7.22) /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11개 산업의 약 6.5만개 업체*
  * 2020년 경제총조사 결과 조사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단독사업체

C. 제조업, F. 건설업, G. 도·소매업, I. 숙박·음식점업, J. 정보·통신업, L. 부동산업, M. 전문·과학·기술업, N. 사업시설·지원업, P. 교육서비스업, R. 예술·스포츠·여가업, S. 수리·기타서비스업

- (조사방법) 조사원 현장조사 및 비대면(인터넷 등) 조사 병행
- (조사내용) 소상공인 일반현황, 창업현황, 경영현황 등 30개 항목

먼저, **소상공인 사업체 수(11개 업종)**는 412만개로 전년 대비 0.2%(1만개↓) 줄었다.

업종별로 살펴보면 도·소매업(-1.6%, 2.2만개↓), 제조업(-1.0%, 0.5만개↓) 등은 감소했으며, 교육서비스업(6.4%, 1.1만개↑), 건설업(3.2%, 1.4만개↑) 등은 증가했다.

종사자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.1%(7.7만명↓) 감소한 721만명으로 집계됐으며, 제조업(-6.6%, 8.8만명↓), 예술·스포츠·여가업(-2.2%, 0.4만명↓) 등이 줄어든 반면, 교육서비스업(3.1%, 0.9만명↑), 숙박·음식점업(1.1%, 1.5만명↑) 등은 늘어났다.

대표자 연령 분포는 50대(30.8%, 126.8만개)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.

전년과 비교했을 때 40대 이상 대표자는 감소한 반면, 20대 이하·30대는 증가했다. 특히 20대 이하의 증가 비율이 11.7%로 높게 나타났다.

* 연령대별 증감 : 20년대 이하(+11.7%, 2.2만개↑), 30대(+4.0%, 2.6만개↑), 40대(-0.8%, 0.9만개↓), 50대(-1.9%, 2.5만개↓), 60대 이상(-2.7%, 2.3만개↓)

창업동기로는 '자신만의 사업을 경영하고 싶어서'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, 이는 전년 대비 1.6%p 증가한 수치이다.

'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'는 전년 6.8%에서 4.3%로 조사돼 2.4%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사업체당 평균 창업 준비기간은 전년과 유사한 9.8개월이며, 창업비용은 8,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.3%(400만원↑) 증가했다.

사업체당 보유한 부채액은 1억 7,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.2%(700만원↑) 늘어났지만,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증가했다.

사업체당 연매출액은 2억 2,500만원으로 2.9%(600만원↑) 증가했고, **사업체당 영업이익**은 39.8%(800만원↑) 증가한 2천 800만원으로 집계됐다.

사업장 점유항목에서는 소유(자가) 비중이 전년 대비 1.6%p 증가한 25.8%으로 나타났고, **사업체당 부담하는 임차료**의 경우 '보증부 월세'의 보증금(8.2%↑)과 월세(4.7%↑)는 증가한 반면, '무보증 월세'의 경우 월세(5.8%↓)가 감소했다.

한편, **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영애로(복수응답)**로는 경쟁심화(42.6%), 원재료비(39.6%), 상권쇠퇴(32.0%), 방역조치(15.7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이번 잠정 조사결과에 대해 이영 장관은 "지난 2년간 코로나 위기에도 사업체당 매출액,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여진다"고 말했다.

아울러 "사업체 수가 소폭 줄어든 상황에서도 20~30대 도전형 창업이 증가한 점은 주목할 만 하다"며,

"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기업가정신과 창의적 생각(아이디어)을 가진 유망 소상공인이 세계적(글로벌)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힘쓰겠다"라고 말했다.

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3월 2021년 소상공인실태조사 확정 결과가 나오면 심층분석을 통해 소상공인·자영업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